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5월 미 생산자 물가도 7개월 만에 크게 하락
- Bloomberg: 연준 올해 1차례 금리 인하 시사... 그러나 2차례도 열어놔
- Bloomberg: 연준, 올해 한 차례만 금리 인하 시사
- Bloomberg: 미 실업수당 청구건수 9개월만에 최고치

[미국 금융]

- WSJ: 미 국채 수익률 계속해서 하락

[한국과 미국 경제]

- 한국과 미국의 무역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숫자

[부동산]

- Bloomberg: 맨해튼 아파트 임대료 5월에 예상치 않게 하락
- Yahoo Finance: 5월 CPI는 순조롭지만, 주택 가격 상승은 여전하다

[글로벌 경제]

- Bloomberg: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 ... 미국은 혜택 보지 못한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N Business: 근로자의 부정적 감정, 글로벌 GDP 9% 줄여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Producer Prices Slip in May From Previous Month

5월 미 생산자 물가도 전월에 비해 하락

- 5월 미 생산자 물가가 전월에 비해 0.2% 둔화됐다고 연방 노동부는 목요일 발표했다. 이 지표는 인플레이 압력이 둔화하고 있다는 가장 최근의 지표다.
- 지난해 10월 이래 가장 크게 하락한 수치다.
-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2.2% 상승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치와 같은 0.3% 상승했다.

WSJ 기사

Bloomberg: Fed Signals One Rate Cut This Year, But Keeps Door Open to Two

연준 올해 1차례 금리 인하 시사... 그러나 2차례도 열어놔

- 연준 관리들은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추었으나 파월 의장은 새로운 전망치가 보수적인 입장임을 강조하면서 금리 인하의 문을 더 열어놓았다.
- 연준 관리들은 당초 올해 3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어제 회의에서 올해 한차례 인하만 시사했다. 어제 오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되는 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연준 관리들은 인플레이 전망도 올렸다.
- 그러나 파월 의장은 최근의 물가지수 하락 지표가 연준 관리들의 분기별 인플레이 전망에 완전히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 Nationwide Mutual Insurance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Kathy Bostjancic는 “올해 빠르면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등 2차례 인하 가능성이 있지만 연준 관리들은 인플레이 둔화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줄 경제 지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Fed Officials Dial Back Rate Forecasts, Signal Just One '24 Cut

연준, 올해 한 차례만 금리 인하 시사

- 연준 관리들은 올해는 금리를 한 차례만 인하하고 내년도에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을 예고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를 억제하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지속하기로 한 것.
- 연준은 어제 수요일 기준금리를 5.25%~5.5%로 동결하기로 했다. 20년 만에 최고치다. 그리고 연준 관리들은 3월에 3차례 올해 금리를 인상키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 단 한 차례 인하를 예상한다고 시사했다.
- 그리고 내년도에는 당초 3차례 예상과는 달리 4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연준 관리들은 금리의 향후 경로에 대해 입장이 서로 달랐다. 이날 발표된 점도표에 따르면 4명의 관리는 올해 금리 인하가 없는 것으로 예상했고, 7명은 한차례, 8명은 두차례 인하를 예상했다.
- 한편 이날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가 둔화되고 있어 긍정적이지만 완만한 진전”이라며 “2% 인플레이 목표로 향하는 추가적인 지표를 불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Jobless Claims Rise to Highest in 9 Months, Led by California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 9개월만에 최고치

- 미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같은 수치 상승은 캘리포니아가 주도했다.
- 6월 8일 끝나는 주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만3천건이 늘어난 24만2천건으로 나타났다고 연방 노동부는 오늘 목요일 발표했다. 예상치는 22만5천건.
- 지난달에 미 실업률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4%로 상승했는데 이는 미국인들이 일자리로 돌아가려고 해도 취업하기 힘든 상황을 보여주는 셈이다. 그러나 해고는 감소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Treasury Yields Extend Declines After Inflation, Jobless Claims

Data

미 국채 수익률 계속해서 하락

- 어제 수요일 소비자 물가가 둔화되는 지표가 발표된 후 오늘 목요일 노동 시장 보고서가 발표된 상황에서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 10년 국채 금리는 어제 수요일 4.294%에서 4.265%로 떨어졌다. 목요일 아침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한 후 이같은 금리 하락 현상을 보이고 있다.
- CME Group 데이터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두차례 인하할 가능성을 72%로 보고 있는데 이는 어제 수요일 63%에서 상승했다.

WSJ 기사

[한국과 미국 경제]

한국과 미국의 무역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숫자

- 지난 2003년 이래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방식을 통한 미국내 일자리 창출은 11만7천개 (조지아 3만4천개, 알라바마 1만5천개, 텍사스 1만4천개)
- 미국이 한국에 대한 수출로 창출된 일자리는 직접적으로 17만7천개, 간접적 창출 일자리는 14만7천개

-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과 투자를 통해 미 전역에 45만개 일자리 창출
- 미 인프라 감축법과 반도체 법에 따른 한국의 프로젝트로 창출되는 공장 건설 일자리 포함한 전체 일자리는 6만6천6백11개

보고서 원문

[부동산]

Bloomberg: Manhattan Apartment Rents Drop Even as Leasing Activity Picks Up

맨해튼 아파트 임대료 5월에 예상치 않게 하락

- 맨해튼 아파트 임대료가 5월에 예상치 않게 하락하며 시장이 정체되는 움직임 보였다.
- 감정평가사 Miller Samuel Inc.와 중개업체 Douglas Elliman Real Estate에 따르면, 신규 임대의 중앙값은 4천2백5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3% 하락했다. 하지만, 임대료는 여전히 5월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 5월에 맨해튼에서는 7천85건의 신규 임대 계약이 체결되어 1년전보다 약 41% 증가했다. 하지만, 매물 재고도 약 28%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Bloomberg 기사

Yahoo Finance: Housing inflation remains sticky: 'The only thing missing' in favorable CPI print

5월 CPI는 순조롭지만, 주택 가격 상승은 여전히

-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에서 “주택 인플레이션이 아직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데이터가 실망스러운 부분으로 언급되었다.
- 수요일 노동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차례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에서 주거비가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5월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core CPI)의 0.2% 상승을 견인한 주요한 요인으로 주택 비용이 지목되었다.
- 전반적으로 시장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월별 및 연간 기준으로 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보고서에 환호했지만,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된다는 점은 이코노미스트들에게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Yahoo Finance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China Exports Deflation But US Isn't Benefiting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 ... 미국은 혜택 보지 못한다

-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의 '과잉 생산'을 비난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관세를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경제적으로 연결된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 유지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어제 수요일에 발표된 중국 정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5월에 20개월째 하락하며 2012~2016년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2023년 초 이후 중국의 수출 가격은 약 14% 하락했지만, 출하량은 급증했다. 이러한 가격 인하는 중국 제조업체의 이익을 압박하지만, 신흥 시장의 중앙은행들이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 일부 신흥 시장은 가격 하락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를 취하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문제이다. 미국은 일부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과하고 고급 기술 판매를 제한하려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할지 검토 중이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N Business: Unhappy workers may reduce global GDP by as much as 9%, Gallup estimates 근로자의 부정적 감정, 글로벌 GDP 9% 줄여

- 이번 주에 갤럽이 발표한 '글로벌 직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직원의 부정적인 감정과 낮은 웰빙 수준이 직원 참여도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해당 보고서는 직원들의 낮은 참여도가 세계 경제에 약 8조9천억 달러, 즉 글로벌 GDP의 9%에 달하는 비용을 초래한다고 추정한다.
-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직장인의 약 20%가 매일 외로움, 분노 또는 슬픔을 느낀다고 답변했으며, 41%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변했다.
- 업무가 항상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주는 직원의 웰빙을 개선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업무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CNN Business 기사

"인플레이 둔화에 매파적 연준 안 무서워"...주식·채권 랠리 전망"**블룸버그 서베이...54.6% "금리인하 상관없이 증시 상승 랠리 지속"
62% "미 국채, 연말에 오름세로 끝날 것"**

미국 시장참가자들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현상) 둔화를 '연착륙'으로 해석하면서 시장이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인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 조사 서비스 'MLIV 펄스 서베이'는 12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동결 발표 이후 자사 단말기 구독자 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조사 결과, 올해 들어 14% 상승한 미 증시의 상승 랠리가 계속될지를 묻은 데 대해 응답자의 54.6%는 '연준의 금리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22.7%는 '연준의 금리인하가 이뤄지면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상승 랠리가 꺾일 것'이라는 응답은 22.7%에 불과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